

# ‘황혼 이혼’ 10년새 6.3배 급증

###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 전남, 2030년엔 10명 중 3명이 노인

저출산·고령화 기조로 인해 오는 2030년에는 전남지역 인구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실버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노인들의 ‘황혼이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현재 광주·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은 45만1천59명으로, 전체 인구(325만1천711명)의 13.9%에 달한다.

이는 2000년 10.3%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전국 평균(9.9%)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남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3만8천509명으로, 전체(180만6천644명)의 18.7%에 달하면서 노인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또 전남은 오는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32.8%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전체 인구 100명 중 33명 가량이 노인이 차지하게 된다. 이는 전국 평균(24.3%)보다 8.5%나 높은 것으로,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가 7월 현재 29.5%에서

57.5로, 2배 가량 치솟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57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청·장년층 인구 2명중 1명 이상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광주도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30년 고령인구가 전체의 21.9%에 달하게 된다. 또 같은 기간 ‘노년부양비’도 10.9%에서 33.5%까지 치솟으면서 노인에 대한 부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7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총 인구의 9.9%에 달한다.

이와 관련,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노인들의 이혼과 재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의 이혼건수는 남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3천87건, 여자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1천251건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여자기준 노인 이혼건수가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황혼이혼’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의 재혼건수도 계속 늘어 지난해 남자는 1천761건, 여자는 509건으로 10년전(1996년)에 비해 1.9배와 3.0배가 각각 증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 참가 광주시 게이트볼 선수들



“광주 화이팅!”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광주시 게이트볼 선수단이 13일 목포에서 열리는 ‘제2회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를 앞두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양석(74)·한구혜(여·74)·윤종례(여·74)·조정자(여·69)·오달명(74)·이기만(75)·심훈(74)·이상호(73)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공은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죠”

### 70대 선수들 남녀 2개 팀 12명 20대의 열정으로 훈련 또 훈련

제 11회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팀의 막내인 조정자(여·69)씨의 날렵한 스윙과 함께 공이 중앙 골대를 향하자 환성이 터졌다. 30분간의 치열한 접전은 오달명(74) 국민생활게이트볼 서구연합회장이 속한 홍팀의 1점 차 승리였다. 힘든 기색 없이 경기장을 누비

는 노인들은 이날 13일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국 노인 건강 대축제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하는 광주 대표선수들이다.

이들은 지난 8월 5개 구(區) 80여 명이 참가한 선수 선발전에서 뽑힌 남녀 2팀의 12명으로, 대회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자 휴일도 반납한 채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우체국·학교·면사무소·조달청·건축설계사무소 등 다양한 인

생 무대에서 반세기기를 보냈던 12명의 선수는, 인생의 황혼길에서 나이를 뒤로한 채 손발을 맞추고 있었다.

오 회장은 게이트볼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공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노력한 만큼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흘러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조정자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70대의 선수들이지만 지지와 열의만은 20대 못지 않다”며 “우리 지역을 대표해 목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대회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오늘 노인의 날 행사 다채

제11회 노인의 날을 맞아 광주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는 2일 남구 사동 시민회관에서 박광태 시장, 대한노인회 광주연합회 송영복 회장 등 노인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위안공연을 연다. 경로현장 낭독, 표창수여, 기념사 등 기

념식과 북구 노인복지관의 장수춤 공연 등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또 동구가 11일 구 전남도청 앞에서 총장 실버페스티벌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에서도 오는 16일 제10회 노인제조경연대회를 갖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거리 사업’

### 대부분 3개월 미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다.

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제11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일자리 유형별 참여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정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노인 일자리 사업 총 참여자는 11만7천837명이었다.

이를 노인 일자리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 고유사업 중 노인에게 적합한 업무를 일자리로 제공해 공공이 일을 도모하는 공익형(거리, 자연환경 지킴이, 방법순찰 등)이 절반이 넘는 54.3%(6만3천979명)를 차지했다.

이어 거동불편노인돌봄기, 보육도우미 등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복지형이 26.6%(3만1천349명), 순생태.문화재해설사, 전통문화지도사 등 특정분야 전문직종 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교육형이 10.6%(1만2천464명) 등이었다.

하지만 간병인사업, 지하철 택배, 실버용품점, 전통공예.문화상품 제작 판매 등 소규모 사업을 공동 운영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은 6.8%(8천99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이 공익형의 경우에도 10명 중 3명 꼴로 3개월 미만에 머무는 등 최대 취업기간이 겨우 8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고용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습스



광주시 동구 계림동 이화경로당 노인들이 1일 오후 ‘우리춤 체조’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살맛나는 문화 경로당

### 동구 자원봉사자 우리춤 체조 등 봉사

광주시 동구 관내 경로당들이 ‘살맛나는 문화 경로당’으로 바뀌고 있다. 동구자원봉사센터가 매주 월요일 11개소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내 ▲가요 ▲우리춤체조 ▲요가 ▲장구 ▲수지침 ▲민요 프로그램 등을 차례로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자원봉사센터가 경로당 문화활동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19일, 노인들의 체계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경로당 전문 자원봉사자부터 모집했다.

‘고려수지침 나눔미’건강체조봉사단’자원봉사자들은

“호남대평생교육원 ‘동구생활체육회’ 등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살맛나는 경로당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최근까지 65개 경로당에 264번이나 찾아갔다. 경로당별로 4~6회까지 방문해 노인들과 흥겨운 시간을 함께한 것이다.

자원봉사단은 1일 오후에도 계림2동 ‘이화 부녀 경로당’을 찾아가, 우리춤 체조를 가르쳤다.

이 경로당의 진영자 당장은 “경로당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고맙다”며 “1주일에 3번은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슬라 시티 ‘우뚝’

### 신·재생에너지 대상 수상

광주시가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관하는 ‘제1회 신·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광주시는 총 73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신재생에너지 보급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시는 친환경적인 태양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1천37억 원을

투입해 ▲90개소의 태양 광 발전시설 2천200kW 설치 ▲조선대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그린빌리지 111세대 조성 ▲조선대 병원 250kW급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또 집단택지지구 에너지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조성과 슬라시티 센터 신축, 전국 최초 태양에너지도시조례 제정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 서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www.impeungdainastee.com